

이창원 개인전 Shadow Casters



일정: 2014. 11. 6 (목) – 2015. 1. 11 (일)

장소: 갤러리 시몬 (서울시 종로구 통의동 35-9)

문의: T. 549-3031 / 720-3031 F. 549-3032

mail@gallerysimon.com www.gallerysimon.com

이미지 및 보도자료: webhard ID: gallerysimon / PW: simon (guest 폴더 내 이창원 개인전 폴더)

갤러리 시몬에서는 기존 조형예술의 문법을 넘어서는 다원적인 접근방식의 작업들을 선보이고 있는 작가 이창원의 개인전 “Shadow Casters”를 11 월 6 일부터 1 월 11 일까지 개최한다.

‘인간은 현상의 이면을 파악하고 세계를 이해하려는 이성의 존재면서 동시에 현상에 매혹되고 속아 넘어가는 감각의 존재, 모순의 존재이다’ 라는 작가의 말과 같이 이창원의 작업은 합칠 수도 분리할 수도 없는 역설적 이원론을 다룬다. 이번 전시의 타이틀 “Shadow Casters”는 작가의 Leitmotif 에 대한 레퍼런스인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에서 연유한다. 동굴에 갇힌 사람들은 사슬에 묶여 평생 자신의 앞만 볼 수 있고, 그들의 뒤에는 모닥불과 죄수들 앞으로 그림자를 드리우는 ‘장치(Shadow Casters)’가 있다. 오랜 실험과 관례화를 이어가면서 형성된 조형성에 대한 해체이자 절합의 성격을 갖는 ‘메타 주제로서의 이미지’의 제시를 통해 작가는 artist 와 그가 만드는 ‘장치’에 대한 은유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2005 년 독일에서 발표되었던 플라스틱 용기를 이용해 스테인드글라스의 빛을 내는 작품인 Holy Light(성스러운 빛)와 함께, 환영적인 상을 비추는 Four Cities(네 개의 도시), Angel of the Mirror, 그리고 플라스틱 조각들로 대륙의 실루엣을 드러내는 The Plastic Ocean(플라스틱해) 등의 다양한 작업들을 선보인다.

이창원은 1998 년 서울대학교 조소과를 졸업하고, 2000 년 독일 뮌스터 쿤스트 아카데미로 유학을 간 이후 10 여 년간 그곳에서 학업과 작가활동을 병행했으며, 2012 년 모리미술관의 맘 프로젝트(MAM Project)의 17 번째 작가로 선정되는 등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